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태인* · 유홍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취업유무, 형태 및 직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 및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주된 독립변수로 설정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형태 및 직종은 자녀의 인성(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및 학업열망, 학습태도,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분위기'를 매개로 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기존 연구의 주장과 유사하게,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기 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이유 등의 매개요인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직종 자체보다도 이것이 가정분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다른 발견으로서, 어머니의 직종이 무엇이건 간에 좋은 가정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발견이 취업주부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어머니의 직업 자체에 의해 자녀들에 대한 영향이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 발견보다는 희망적인 것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의해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의의가 있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I.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이나 학업 열망 및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의 인성 형성에는 유아기부터의 사회화 과정,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경험, 또래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환경도 세분할 경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수준, 가족의 구조¹⁾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²⁾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사와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은 여러 면에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Spitze, 1988).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족관계의 영역들로는 부부관계에서 가사노동 분담, 부부간 권력관계, 결혼만족도 등의 주제가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 학업성취도, 자녀의 성(性)역할 인지 및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정창수 외, 1997: 62).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로서 주부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더불어 자녀의 학업열망 수준이나 학습

1) 이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분류뿐만 아니라, 정상가정과 결손가정의 구분 등이 가능하다.

2)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중·장년 남성 가장노동자들이 경제활동 기회를 잃고 있는 데 반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년 현재 총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77.9%로 나타나고,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에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30-40%로 낮지만, 행정관리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어업직 및 생산관련직에서는 80%이상의 높은 비율을 점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직장여성의 이미지, 즉 젊은 미혼 여성이 생산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고정관념이다(유홍준, 2000: 230-231).

태도, 교우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한 연구(백문화·조병은, 1992)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결속력이 더 강하다고 한다.³⁾

그런데 주부의 취업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매개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주부의 생활만족도 및 가정의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인성 및 학교생활 등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은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 부인의 직업만족도, 부인과 남편의 수입의 차이 등과 같은 매개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1987; 박미령, 1988; 박태은, 1983; 서동인, 1985; 정순현, 1986).

따라서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기반 위에서 주부취업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 조사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맞벌이부부 가족의 확산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취업기회의 확대라는 경제적 유인 이외에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상대적인 약화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상승에 따라 여성들이 취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계획을 갖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들이 가정에 파묻혀 남편에 대한 종속적인 생활에 얽매이기 보다 자아실현 열망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적 욕구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유

3)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어머니와의 응집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는 가정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남편 한 사람만의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기 어렵게 된 여건의 변화가 주부들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재근, 1986).

주부의 취업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취업 주부는 남성과 달리 가사·양육과 직장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된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비단 취학 전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지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자녀양육은 가사활동의 주요 범주로 여겨짐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은 여전히 아버지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에게는 자녀의 양육과 지도가 여전히 무거운 책임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유아나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취업주부보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갈등이나 고민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간다’는 표현처럼 보호의 차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물리적인 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다할 수 있는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도, 이해와 수용을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핵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양육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취업여성은 가사역할 분담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마련이다. 이때 부부의 역할 수행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갈등,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녀의 인성이나 학업 열망, 교우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⁴⁾

사회적·심리적인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나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 형제·자매간의 다양하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화 경험을 해 온 현대의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하는데는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 성, 직업, 가정, 사회, 세계 속에서 자기존재와 역할을 탐색하여 자

4) 기존의 한 연구(김제한, 1978)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이혼율과 자녀들의 비행율을 높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어서, 유영주(1981), 이희정(1989) 등은 주부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나 자녀문제 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다루기 힘든 시기이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물이해나 간섭에 민감하여 불안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한 한편 부모의 훈육도 가장 많이 요구된다(이순희, 1985). 그런데 부모들이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성을 형성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은 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시대적 환경과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기 자녀들과 달라서, 부모의 요구와 가치기준이 자녀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이정현, 1993).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기대 차이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이효재, 1987).⁵⁾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서로간의 요구사항이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접촉기회가 제한된다면 자녀의 인성과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주부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여러 역할 중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사실만은 아니다. 그러나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정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가정 내에서의 모-자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선행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유영주, 1981 ; 정진성, 1987 ; 추영란, 1980 ; 이희정, 1989).

경제활동을 하는 주부들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점 때문에 자녀에 대해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며, 자신의 직업생활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김영화, 1991).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고독감과 불안감을 주게되어 낮은 학업성취 열망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들도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의 자녀

5) 사회·문화적 변동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급속하고, 사회적 가치규범이 불분명하여 상호갈등을 나타내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부모의 세력이 청소년기 자녀의 세력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회의를 품으며 그들의 자유와 자립성을 가능한 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려 하기도 한다(이희정, 1989).

가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이숙·박성연, 1988). 또한 어머니의 직업활동이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되고,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자녀들의 고립화를 심화시켜서 모-자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⁶⁾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성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offman, 1974).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어머니의 수입은 자녀에게 보다 나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일관되게 행동하게 되고, 또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애착을 완화시켜서 자녀가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높은 성취동기와 학업수행을 하도록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자녀의 인성과 사회적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못하다(김영화, 1991).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취업의 구체적 특성들(예: 어머니의 직업유형, 직업만족도, 취업형태, 근무시간 등)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행동 그리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정창수 외, 1997: 142).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어머니의 직종에 따라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에 차이를 나타낸다

6) 그러나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이순희, 1985)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학생은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면 괜찮다'(58.9%), '절대적인 지장이 있다'(21.9%)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괜찮다'는 비율이 45%인데 비해 '절대적인 지장이 있다'는 비율이 43.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여학생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보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머니의 직업유무 자체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큰 변수로 작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응익, 1997). 어머니가 전문직을 가진 가정은 질 좋은 가정환경이 이미 마련되고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을 것이지만, 반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하층계급에서는 자녀의 인성발달이나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가정환경 자체가 조성되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性)과 가족의 계층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예로, Hoffman, 1979; Miller, 1972; Mott, Statham, and Maxwell, 198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이 딸에게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할모델로 비춰져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딸이 전업주부의 딸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취업여성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아들에게 어머니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무능력하게 보이게 하고 이는 결국 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정창수외, 1997: 63). 국내의 한 연구(김영화, 1991)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직종에 따라 여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가족의 계층지위와 상관없이, 비숙련직 및 생산직 종사자의 자녀는 미취업 주부나 판매·서비스 및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보다 학업성적이 낮았고, 반면에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자녀는 다른 직종 종사자나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벨스키 등(Belsky et al., 1984)은 주부의 취업 여부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는 태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연구결과,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에 있어야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

7) 어머니의 취업자체보다도 어머니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자녀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 또는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학업성적이 높고(한항문, 1982), 노동직·피고용직·자영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들보다 교사직·관리직·전문직종을 가진 어머니의 아동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손화희·윤종희, 1990).

건 안 갖고 있건 상관없이 그 상태를 만족해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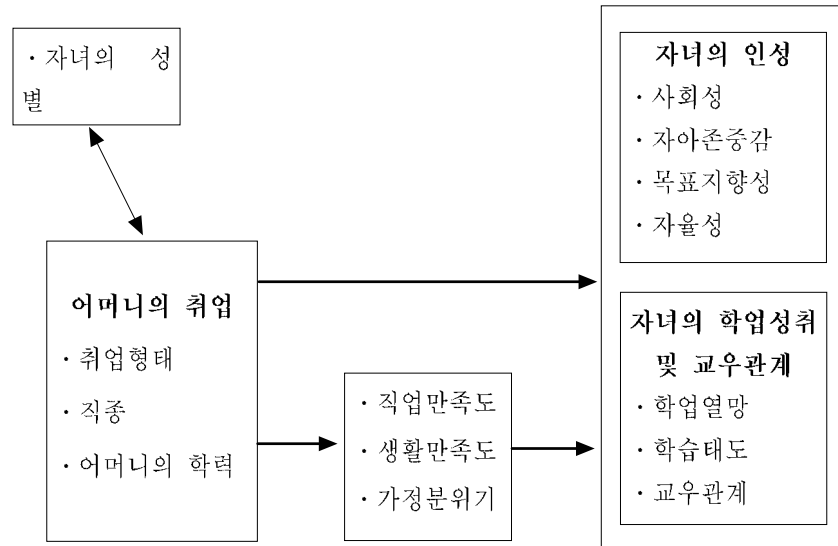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직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생활에 대한 태도, 가정의 분위기 등의 변수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견숙(1982)도 어머니의 직장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취업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직업이나 직장생활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발견을 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델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들은 어머니의 취업형태와 직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분리하였다. 매개요인으로 선정된 것은 취업 주부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가정의 분위기이다. 더불어 자녀의 성별, 학년,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영향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그림 1] 연구모델

연구모델에서 보여지는 관계를 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어머니의 직종이 전문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가정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정분위기가 좋을수록,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인

(1) 어머니의 취업 형태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어머니가 가사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취업의 유형을 의미한다. 변수값은 미취업, 재택근무를 포함한 가내근무, 시간제근무(part-time), 전일제근무(full-time)로 구분하였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위해서는 미취업을 기준변인으로 하여 가(dummy)변수로 처리하였다.

(2) 취업한 어머니의 직종

직종은 애초 8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으나⁸⁾, 이론적 검토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직종사 어머니의 경우 자녀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직, 교·강사, 사무·관리직을 한 범주로 묶어서 여타의 직업과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기타 직업범주를 기준변인으로 하여 가(dummy)변수로 변수화 하였다.

(3) 어머니의 학력수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고,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고졸이하를 기준변인으로 하여 가(dummy)변수로 처리하였다.

2) 매개변인

(1) 직업만족도

응답 자녀가 인지하는 취업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는 돈보다는 일 자체가 좋아서 직업을 택하신 것 같다’, ‘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자주 자랑삼아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다’, ‘어머니는 결코 지금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모든 문항이 동일요인으로 묶였으며⁹⁾, 척도

8) 농축산업, 사업·자영업, 판매·서비스업, 사무·관리직, 교·강사(학습지교사 포함), 전문직, 노동직, 기타의 범주이다.

9) 요인분석은 회전 성분행렬 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고, 요인묵

신뢰도(Cronbach Alpha)는 .973이다. 척도에 사용된 문항은 모두 중간 값을 뺀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 생활만족도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응답한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애초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한 문항이 이탈되어, ‘어머니는 하루 일과를 만족스러운 듯 가족에게 말씀하시곤 한다’, ‘어머니는 조용히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만족하시는 것 같다’, ‘어머니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 편이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가정분위기

응답 청소년이 느끼는 가족 내 심리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사용된 이 4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척도신뢰도(Cronbach Alpha)는 .732이다. 4개의 질문 문항은 ‘우리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때가 많이 있다’, ‘부모님은 각자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열심히 완수하시는 편이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좋다’, ‘우리 집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편이다’로 이루어졌다.

3) 종속변수

(1) 자녀의 인성

기존에 국내의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독립심, 자신감, 성실성을 측정하는 2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부록 1>의 요인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해당 문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척도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2) 학업성취

응답한 청소년 자녀가 공부에 대해 갖는 태도를 의미한다.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2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각각 ‘학업열망’과 ‘학습태

임(factor loading)의 기준은 .6으로 하였다.

도'로 척도 명칭을 부여하였다.¹⁰⁾ 학업열망은 '공부는 꼭 필요한 것이다'와 '공부는 나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요인부하(factor loading) 값은 .765와 .727이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 값은 .719이다. 학습태도 척도는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한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끝까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다'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부하(factor loading) 값은 .625에서 .771까지이며, 척도신뢰도 계수 값은 .715이다.

(3) 교우관계

응답한 청소년 자녀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정의한다. 질문에 사용된 6개 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4개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¹¹⁾ 척도의 신뢰도 계수 값은 .633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처리방법

본 연구는 이윤금(2000)의 자료¹²⁾를 이용한 2차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2000년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하였다.¹³⁾ 먼저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강북, 강동, 종로 소재의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를 임의로 선정

10) 한 개의 문항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아 척도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11) 4개의 문항은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나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다', '친구들과의 사귀는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일단 친구를 사귀면 오래 지속해 오고 있다'이다.

12) 이윤금은 2000년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유홍준의 지도하에 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13) 취업모의 청소년자녀 집단과 미취업모의 청소년 자녀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려면 두 집단간의 비율을 갖게 하여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확률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단간의 비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좀더 다양한 대상선정을 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에 해당한다.

하였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 의정부, 고양 소재의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각 학교단위로 100부씩 전달한 다음 개인에게 배포하게 하고, 후에 다시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총 8개교의 학교에서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 3월-4월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미회수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55부를 제외한 총 745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dows 패키지로 통계 처리되었으며, 기본통계 외에 상관관계(correlation)분석, 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265명(35.6%), 여학생 480명(64.4%)이며, 중학생이 353명(47.4%), 고등학생이 392명(52.6%)의 분포이다.

응답학생 어머니의 취업형태 분포는 미취업 48.9%, 가내부업 3.4%, 시간제근무 10.2%, 전일제근무 36.5%이다. 취업한 경우, 직종은 두 범주 중 전문직, 교·강사, 사무·관리직이 1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31.9%, 그 미만이 68.1%이다.

종속변인과 매개요인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나타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14) 학교 선정 및 응답학생 선정에 확률표집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임의표집이 사용된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이다.

<표 1> 변수의 기술(descriptive) 통계치

	직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	가정 분위기	사회성	자아 존중감	목표 지향성	자율성	학업 열망	학습 태도	교우 관계
평균	2.65	1.54	2.11	1.55	1.67	1.76	1.92	1.83	1.56	2.16
표준편차	1.41	.56	.56	.59	.68	.84	.62	.68	.51	.47

주) N=745, 최저값=1, 최고값=4

각각의 척도가 4점 척도(중간값=2.5)인 점을 고려할 때,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취업한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만이 긍정적인 쪽으로 값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모든 측정 변수에서 대체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인성의 여러 차원에서도 응답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학업성취 욕구도 낮은 편이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먼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명목변수인 취업형태와 종속변인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취업 형태는 일급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가설 1이 기각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직종이 종속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어머니의 전문·사무관리직 취업이 일급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1도 기각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종속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열망, 사회성, 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2> 어머니의 학력과 학업열망, 사회성, 목표지향성

	학업열망	사회성	목표지향성
고졸 이하	1.78	1.51	1.72
대졸 이상	1.99	1.69	1.91
(유의도)	***	***	*

주) 값은 1-4의 범위를 가진 평균값임.

*** $p < .001$ ** $p < .01$ * $p < .05$

이러한 결과는 가설 1-2를 기각하지는 못하는 결과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것처럼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열망도 높다는 점과, 이에 따라 목표지향성이 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사회성 척도가 적응력, 리더십, 사교성 항목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반영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가정분위기 등 매개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취업형태별로 3가지 매개요인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가설 2는 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 3>을 보면, 자녀가 인식하는 취업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전일제 근무직의 경우에 가장 높지만, 생활만족도나 가정분위기는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학생들의 경우에 오히려 높게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유형은 직업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활만족도나 가정분위기와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가설 2가 부분적으로만 수용되는 결과이다.

<표 3> 취업형태별 매개요인에 대한 영향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가정분위기
미취업	-	1.63	2.18
가내부업	1.21	1.58	2.14
시간제근무	1.28	1.42	2.05
전일제근무	1.34	1.45	2.06
(유의도)	***	***	*

주) 값은 1-4의 범위를 가진 평균값임.

*** p<.001 ** p<.01 * p<.05

한편 어머니의 직업 종류가 자녀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가정분위기 등 매개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변수 역시 취업형태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직업이 전문·사무관리직일 경우가 기타 직업인 경우에 비해서 자녀가 인식하는 취업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가정분위기가 일관되게 높다. 그러나 위의 <표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나 가정분위기는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어머니의 직종별 매개요인에 대한 영향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가정분위기
미취업	-	1.63	2.18
기타직업	1.26	1.45	2.05
전문·사무직업	1.58	1.49	2.10
(유의도)	***	***	**

주) 값은 1-4의 범위를 가진 평균값임.

*** p<.001 ** p<.01 * p<.05

이외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¹⁵⁾, 남자 자녀가 여자 자녀보다 어머니의 직업 및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고¹⁶⁾, 고등학생 자녀보다는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고 가정분위기가 더 좋다고 인식하는 차이를¹⁷⁾ 보여준다. 또한 세 가지 매개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나, 그 관계의 강도는 높은 편은 아니다.¹⁸⁾

한편 매개요인과 종속변인간에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서(표 5 참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종속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아직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종속변인들 간에는 모두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5> 매개요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15) 평균값의 차이는 각각 2.52 : 3.01 및 1.50 : 1.66 이다.

16) 평균값의 차이는 각각 2.80 : 2.57 및 1.67 : 1.48 이다.

17) 평균값의 차이는 각각 1.44 : 1.66 및 2.05 : 2.20 이다.

18) 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간에는 0.231($p < .001$), 생활만족도와 가정분위기간에는 0.399($p < .001$), 직업만족도와 가정분위기간에는 0.160($p < .00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	가정분위기
학업성취			
학업열망	.001	.114***	.207***
학습태도	.034	.218***	.336***
교우관계	.055	.108***	.276***
인성			
사회성	.035	.040	.165***
자아존중감	.017	.076**	.290***
목표지향성	.036	.079**	.219***
자율성	.028	.051	.055

*** p<.001 ** p<.01 * p<.05

3) 가설 3의 검증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정분위기가 좋을수록,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독립변수군(群)이 갖는 설명력을 확인한 뒤 매개변인들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표 6>은 자녀의 인성변인에 대한 다변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인성 변인에 대한 다변수 회귀분석 결과

	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여학생 자녀	.009	.008	.060	.045	.027	.038	.068	.052
고등학생 자녀	.066	.106**	.010	.038	.023	.018	.101*	.106*
가내부업	.026	.045	.035	.051	.004	.051	.019	.081
시간제근무	.011	.007	.058	.175	.077	.180	.017	.140
전일제근무	.096*	.066	.028	.126	.061	.202	.068	.252
전문사무관리직	.027	.031	.035	.028	.000	.002	.017	.022
대졸이상	.131**	.130**	.075	.055	.097	.092*	.066	.077

	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생활만족도		.021		.018		.021		.016
직업만족도		.065		.218		.124		.187
가정분위기		.190***		.318***		.235***		.042
결정계수(R제곱)	.030	.070	.013	.105	.017	.074	.024	.032
매개요인에 의한 R제곱 증가율	233%		807%		435%		133%	

주1)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값임.

주2) 독립변수군은 모두 가(dummy)변수임.

*** p<.001 ** p<.01 * p<.05

<표 6>을 보면, 어머니의 취업형태나 직종은 자녀의 인성 차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회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의 직종은 자녀의 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변수군이 종속변수 차원에 대해 갖는 설명력도 1.3%에서 3%정도로 매우 낮다. 하지만 앞서 분산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도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사회성과 목표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개요인 중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가운데 가정분위기가 자녀의 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개변인이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에, 결정계수값의 증가율은 133% 내지 80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의 내용 중, 적어도 가정분위기는 자녀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정분위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7>은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대한 다변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7> 학업성취 및 교우관계에 대한 다변수 회귀분석 결과

	학업열망		학습태도		교우관계	
여학생자녀	.000	.007	.019	.026	.056	.078
고등학생자녀	.042	.005	.124**	.052	.070	.131***
가내부업	.031	.021	*	.100	.013	.101
시간제근무	.001	.076	.047	.108	.067	.223*
전일제근무	.041	.084	.048	.075	.084*	.317*
전문사무관리직	.018	.007	.030	.028	.000	.011
대졸이상	.142**	.135**	.046	.067	.041	.004
	*		.086*			
생활만족도		.045		.093		.003
직업만족도		.168		.176		.221
가정분위기		.207***		.316***		.295***
결정 계수(R제곱)	.021	.068	.026	.143	.017	.111
매개요인에 의한 R제곱 증가율	324%		550%		653%	

주1)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값임.

주2) 독립변수군은 모두 가(dummy)변수임.

*** p<.001 ** p<.01 * p<.05

<표 7>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어머니의 취업형태나 직종은 자녀의 학업열망이나 학습태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어머니가 시간제나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교우관계에서 미취업 주부의 자녀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앞서 분산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도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립변수군이 종속변수 차원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표 6>의 경우와 유사하게, 1.7%에서 2.6%정도로 매우 낮다.

매개요인 중에서는 가정분위기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가운데 자녀의 학업열망과 교우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개변인이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에 결정

계수값의 증가율은 324% 내지 653%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의 내용 중, 적어도 가정분위기는 자녀의 학업열망이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열망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가정분위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과 생활만족도 및 가정분위기가 청소년 자녀의 인성 및 학교생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로 설정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형태 및 직종은 자녀의 인성 및 학업열망, 학습태도,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분위기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인성 및 학업열망, 학습태도,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기존 연구의 주장과 유사하게,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기 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이유 등의 매개요인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직종 자체보다도 이것이 가정분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해석을 요한다. 즉 기존 연구들(김영화, 1991; 손화희·윤종희, 1990)의 주장과 달리, 전문·사무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이 가정분위기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직업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¹⁹⁾, 어머니의 직종이 무엇이건 간에 좋은 가정분위기를 조

19) <표 4>를 보면, 가정분위기 인식의 평균값 차이는 4점 척도상에서

성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발견이 취업주부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어머니의 직업 자체에 의해 자녀들에 대한 영향이 결정된다는 발견보다는 희망적인 발견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의해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2차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여타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더불어 독립변수로서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취업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녀가 지각한 인식으로 측정한 한계도 지닌다. 또한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서울·경기에 위치한 몇몇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므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로 현상을 일반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나 근로청소년들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상의 제약점을 극복한 연구설계를 통해 보다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1987).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화(1991).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 여성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응익(1997).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재근(1986). 맞벌이가정 아동과 홀벌이 가정 아동의 제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1988).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와 주관적 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온(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0.05에 불과하다.

제1권 제2호.

백문화,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2호.

서동인(198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제11권 제1호.

이숙·박성연(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유영주(1981). 가족관계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홍준(2000). 직업사회학. 경문사.

이건숙(1982). 어머니의 직업 또는 가사에 대한 만족이 아동의 성역할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희(198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금(2000).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분위기가 청소년 자녀의 성격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현(1993). 맞벌이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경문사.

이희정(1989).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청소년기 모-자녀관계의 상호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순현(1986).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부부역할인지와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진성(1987). 여교사 자녀의 자아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창수·정기선·차종천(1997).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집문당.

추영란(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항문(1982).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 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논총. 제17권.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Belsky, J., Cernek, R.M., & Spanier. G.B.(1984). *The Child in the family*. Addison - Wesley Publishing Co.
- Hoffman, L.W.(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 Miller, S.M.(1972). Effects of Mathernal Employment on Sex-role Perception, Interests, and Self-esteem in Kindergarten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 Mott, Frank L., Anne Statham, and Nan L. Maxwell(1982). From Mother to Daughter: the Transmission of Work Behavior Patterns across Generation. In Frank L. Mott (ed.), *The employment Revolution: Young American Women in the 1970s*, Cambridge, MA: MIT Press.
- Spitze, Glenna(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ABSTRACT

The influence of mother's waged-work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school life

Chung, Tae-In* · Yoo, Hong-Joon**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other's waged-work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school life.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mother's waged-work, is measured by 'type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al category'. The dependent variable is composed of four personality traits(sociability, self-esteem, goal-orientation, and autonomy) and three school-life related dimensions(academic aspiration, work attitudes, peer relationship). We introduced three mediating factors such as mother's job satisfaction, general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atmosphere.

The data were gathered from 745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in Spring of 2000.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ch as t-test, ANOVA,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sion,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 mother's waged-work,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school life.

However, we conclude that mother's waged-work have some influence on dependent variables through a mediating effect of 'family atmosphere'.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SKKU

** Professor, Sociology. SKKU

